



## 논어의 현대적 해석



노윤래  
칼럼니스트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 본부장
-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강사

**공**자(B.C. 551~B.C. 479)는 이름은 구(丘), **오**자는 중니(仲尼)이며 오늘날 중국 산둥성 곡부(曲阜)에서 출생했다. 그가 태어난 시대는 불안한 질서가 200여 년간 계속되었던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교체되는 과도기로, 패자가 되기 위해 전쟁을 벌였던 제후국들의 끊임없는 싸움으로 천자국 중심의 정치 질서가 실종된 상태였다.

공자는 법치보다는 인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주례(周禮)를 회복해 선왕이 주도한 인정(仁政)의 경지에 이를 수 있기를 희망했으며 당대 지도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실천해 나갔으며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그렇게 함으로써 제세구민(濟世救民)의 삶과 정신을 구현했다.

공자는 인(仁)과 예(禮)를 실현하고 주나라의 문화와 제도를 회복해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고 춘추시대의 사회질서를 회복하려는 일념으로 천하를 떠돌았으나 제후들은 그의 정치 이념을 외면했다.

만년에 고향에 돌아와 제자 교육에 헌신했다. 비록 현실 정치에는 실패했으나 그의 사상은 중국을 비롯한 동양 사회에서 주도적 지위를 점하게 된 성과를 이룬 사상가, 대학자, 교육가로 또한 유가를 창시한 위대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 『논어』

오늘날의 세계가 정의와 가치, 그리고 선(善)에 의한 원칙이 기본에 의해 작동되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듯하다. 고전이 소중한 것은 그것이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인간이 나아갈 바를 본원적으로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논어』는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동양 사회의 형성과 사유체계는 결코 『논어』와 분리될 수 없다. 『논어』는 송나라의 유학자인 주희가 저술한 『논어집주』(論語集註)가 절대적 권위를 가진 해



20편으로 구성된 『논어』는 공자와 제자들과의 문답식 대화로 이루어져있으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공자는 짧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석서로 인정되어 성리학이 지배했던 조선왕조 시대에 주도적 위치를 차지해 왕조 통치의 기본 이념으로 작용했다.

한자는 표음문자가 아니라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그 글자가 뜻하는 바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석하는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오늘날에는 공자가 살았던 당시의 한자 어와는 뜻이 다른 부분이 『논어』의 여러 문장에서 발견된다는 점에서 좀 더 정교한 해석과 함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논어』의 분명한 맥락을 잡아야 한다.

『논어』는 1편 학이(學而)부터 마지막 요왈(堯曰)까지 모두 20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대부분 공자와 제자들과의 문답식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공자는 짧게 그러나 이

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공자가 훌륭한 스승임을 알 수 있다.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자왈: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유봉자원방래 불역락호 인부지이불은 불역군자호)

공자는 말한다. “배우고 때에 맞춰 이를 실천하니 이 아니 즐거운가! 벗이 먼 지방으로부터 찾아오면 즐겁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쉬워하지 않는다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대부분의 『논어』 해설서를 보면 “첩”을 “익히다” 또는 “연습하다”로 풀이하고 있어 공부는 배운 것을 되풀이 연습해 익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소극적인 해석으로 생각되는데, 현대에는 배운 것을 외우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배우고 때에 맞춰 이를 실천하니...”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논어』의 마지막 편 요왈(堯曰)의 끝 문장은 아래와 같다.

子曰: 不知命 無以爲君子也. 不知禮 無以立也. 不知言 無以知人也.(자왈: 부지명, 무이위군자야. 부지례 무이립야. 부지언 무이지인야)

공자는 말한다.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를 알지 못하면 입신할 수 없다. 말을 판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알 수 없다.”

공자의 유명한 三知(삼지)(知命(지명), 知禮(지례), 知言(지언))를 설명하고 있다. 知命이란 자신의 운명을 안다는 것인데 이는 본인의 소임과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고, 知禮는 예부터 우리는 東方禮儀之國(동방예의지국)이었고, 知言은 소통 능력을 뜻하는데 대부분의 『논어』 해설서는 “不知言”을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말을 판별하지 못하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현대적 감각에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제삼자의 말을 단순히 알아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의 진의를 판별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참으로 옳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술이(述而)편에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我非生而知之者 好古敏以求之者也.(아비생이지지자 호고민이구지자야.) “나는 태어나면서 만사를 안 것이 아니고, 옛것을 좋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 그것을 구한 사람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한 것을

보면, 일평생 성실하게 노력했던 공자의 모습을 가늠해볼 수 있다.

군자와 소인은 어떻게 다른지를 묻는 제자의 질문에 공자는 자로(子路)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화) “군자는 화합하지만 같지 않으며, 소인은 같지만 화합하지 않는다.” 공자는 항상 제자들에게 군자의 위용을 갖추라고 가르쳤다. 공자의 이 말은 『논어』의 주옥같은 명구 중에서도 최고의 명언이라 할 수 있다.

### 온고지신(溫故知新)

흔히 유학이 형식주의에 함몰되어 있다고 비판을 하지만 공자의 명언을 보면 그가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말이 있다. 현대인들이 옛것을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생각이나 사상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야말로 고리타분하고 반시대적 사상이 아닐 수 없다. 흔히 보수적 정치 이념을 낡고 수구적인 사상으로 폄하하고 있으나 진정한 보수란 옛것을 고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옛것은 끝까지 보존해 후손에게 전해주고 현대 정신에 맞지 않고 나쁜 제도나 사상은 과감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개선하고 실천하려는 생각이 참된 보수적 이념임을 깨달아야 한다. **KAIF**